



보람된 삶

정병모/자유기고가

먹을 것을 찾아 마을로 내려온 산나귀는 멋진
외양간에서 맛있는 먹이를 한가롭게 먹고
—— 있는 집나귀를 보았다.

산나귀는 몹시 부러워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다가 다시 산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산나귀는 산더미같은 짐을 끌며 힘겹게 고갯길을 오르는 나귀를 보았다. 마을에서 보았던 바로 그 집나귀였다.

산나귀는 중얼거렸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산다해도 자유롭게 사는 내가 훨씬 행복하지 않은가.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행복한 삶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별개로 존재하는 것은 더욱 더 아니다.

생활의 어느 순간, 뭔가 뿌듯함, 즉 보람같은 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이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보람 있는 순간 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새해부터는 의식적으로 그런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첫째, 과거의 일 때문에 자신의 정신이나 감정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지. 과거는 언제나 괴로운 것이다. 과거를 거울삼아서 현재의 일에 최선을 다하자.

둘째, 자신의 삶이나 현실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나는 한번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서 자공심을 키우자.

셋째, 생명의 원천인 사랑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관심을 갖게 되면 함께 있게 되고, 함께 있게 되면 손을 잡게 된다.

넷째, 자신의 삶이 마치 환경의 희생물인양 주위를 탓하며 한(恨)스럽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에서 탓할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고 믿어야 한다.

다섯번째, 눈앞의 작은 일에 지나칠 정도로 에너지 소모하고 있지는 않은지. 큰 흐름과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소(小小)한 것은 털어버리자.

여섯번째, 삶의 가치를 상실하고 도덕적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희망과 용기, 도전과 응전의 자세는 언제나 새로운 힘이다.

일곱번째, 매사를 지나치게 따지고 뜯어보면서, 이리 재고 저리 헤아리지는 않는지. 나의 노력이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믿을 때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된다.

여덟번째, 자녀와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그들의 느낌을 들어주고, 왜 그렇게 느끼는지를 알아야 한다.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아홉번째, 자녀의 책상 위나 침대 옆에 가족의 사진을 놓아주고 있는지. 자녀들에게 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옆에는 항상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이 있다는 현실을 느끼게 해야 한다.

열번째, 수고를 끼친 일이나 잘 한 일에 대해서는 가볍게라도 뜻을 표하는지.

칭찬이 넘치고 뭐든 주고 또 주려는 삶, 보람의 새해는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삶이어야 한다.